

“내가 환자라면 불법은 약이고 스승은 의사입니다”

법사: 링 린포체

주제: 보리심·출리심·공 체득에서 해탈로

일시: 2008년 11월 21일

주최: 영축총림 통도사

장소: 통도사 서울포교당 구룡사

제22대 링 린포체가 통도사 화엄산림법회 기간에 맞춰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의 청으로 11월 21일 한국을 방문했다.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한 린포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과 지속적인 교류를 원한다”며 “달라이 라마를 만나 볼 수 있도록 지관 스님을 인도에 초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지관 스님은 “인연이 닿으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수행 정진에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외쳐서 감사하다”며 화답했다.

달라이 라마, 링 린포체와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정우 스님은 2009년 9월 달라이 라마를 무비자 지역인 제주도로 초청할 계획이다.

한국방문이 다섯 번째인 링 린포체는 기자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 와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환대해주는 것을 보면서 전생의 링 린포체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다”며 “전생의 링 린포체와 나를 하나로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닫기 위해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3월 티베트 유희 사태 이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스님은 “8차례 대화를 했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달라이 라마는 중도를 원칙으로 문화, 종교, 언어 등에 대한 독립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공부에만 몰두하고 있는 린포체는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달라이 라마의 한국 방문에 대해서 “달라이 라마가 한국에 온다면 종교를 초월한 훌륭한 가르침을 전해줄 것”이라고 전하며 방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워했다.

링 린포체는 11월 23일 오전 10시 서울 구룡사에서 첫 법문을 설했다. 법문을 요약 정리했다.

훌륭한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교육과정에서는 반드시 자신만의 특별한 스승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원칙적으로 같지만 스승이 없으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이 환자라면 불법은 약이고 스승은 의사와 같습니다. 저는 3월 달라이 라마에게 밀교(密敎)와 현교(顯敎), 공의 현실화(realization of emptiness) 등에 대해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티베트 스님들은 공부를 아주 많이 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20년간 새벽5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매일 20시간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중 앞에서 보름에 걸쳐 시험을 치릅니다. 한 사람당 3-10명씩 돌아가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질 때 무의식중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 오면 것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이랍니다. 제가 비록 21대 링 린포체 스님의 후신(後身)이지만 저 또한 부처님 가르침을 구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수행에 몰두해야 합니다. 달라이 라마 스님은 저에게 전생에 내가 누구였든 부처님 말씀을 잘 깨달아 중생제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불법과 스승을 모시며 배움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1월 23일 서울 구룡사에서 첫 법문을 설하는 링 린포체.

#마음을 닦고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라

첫째, 얽여져 있는 그릇에 무엇을 담으려 해도 담을 수 없듯이, 부처님 법을 공부할 때에는 항상 마음의 그릇을 바로 놓아야 합니다.

둘째, 오물이 들어있는 그릇에는 음식을 담지 못하듯, 마음의 허물을 벗고 부처님의 법을 온전히 새겨야 합니다.

셋째, 구멍이 있는 그릇에는 어떤 것을 넣어도 빠져버리듯 마음의 구멍을 없애 부처님의 말씀을 잘 담아야 합니다.

부처님 법은 마음이 가장 기본인 것은 모두가 아실 겁니다. 절에서 향 피우고 예불을 드리는 것들은 어느 종교에서나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을 닦아 실천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완전한 마음을 갖추기 위해서는 항상 현생의 인연에 집착하는 마음을 갖지 말며, 지금 부처님의 법을 배울 수 있는 현재의 기회와 조건이 완전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드넓은 인도 갠지스 강의 모래를 두 손으로 퍼올릴 때 내 손으로 들어온 모래를 생각해보십시오. 모래와 나의 만남이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인연임을 알 것입니다. 그러한 인연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 지금 부처님의 법을 배울 수 있는 인연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누구나 불법을 깨달을 수 있다고 합니다. 깨달음은 책상에 경전을 진열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으름이 아니라, 불법을 공부하고 지혜를 얻어 일체중생이 성불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른 어떤 가르침보다 수승하다는 것을 알아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세 핵심

-보리심·출리심·공의 체득

부처님의 가르침인 해탈을 성취하려면 보리심(菩提心), 출리심(出離心), 공(空)의 체득이 필요합니다.

보리심은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첫 번째 길입니다. 보리심은 삼라만상 중생의 고통을 보고 자비심을 일으켜 중생을 제도하려는 마음입니다.

출리심은 윤회에서 벗어나 열반을 회구하는 마음

입니다. 만약 출리심이 없으면 일체의 공덕은 단지 인연(人天) 등 선취(善趣)의 공덕(功德)은 되지만 생사에서 해탈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생과 현생, 현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청정한 출리심을 내야 합니다.

청정한 출리심과 보리심을 갖춰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아집으로 인해 손발이 묶여있다면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손과 발이 묶인 채 쇠그물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바다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쇠그물을 빠져 나올 방법도 모르고 바닷물이 출렁이면 폼타 가라앉았다를 반복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집이라는 쇠그물에 사로잡혀 끊임없이 윤회에 그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집은 공성(空性)의 체득을 방해합니다. 일체중생, 삼라만상은 연기합니다. 연기, 공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알고 마음 속 깊이 깨닫는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에 쉽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공(空), 무아(無我), 연기(緣起)를 깨달아 완벽한 깨달음의 길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최근 미국 경제가 무너지자 전 세계의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이처럼 연기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공은 모든 것이 연기하며, 자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음을 알므로부터 체득할 수 있습니다.

출리심, 보리심, 공에 대한 생각으로 게으름에서 벗어나 정진한다면 우리는 깨달음의 길에 쉽게 도달할 것입니다. 부처님 법은 평소에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만큼 떠올려 생활 속에서 항상 체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인간의 수명은 제한돼 있습니다. 현생과 현상에 대한 집착으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죽는다면 개가 죽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마치 금을 채취하러 가서 금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현생에 대한 욕망과 집착은 상대와 나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집착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갖고 재물을 죽어서 갖고 가지 못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현생, 윤회의 과정 속에 머물러 있는 내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깨달겠다는 마음 집어넣으십시오. 공(空), 무아(無我), 연기(緣起)를 깨달아 완벽한 깨달음의 길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스승과 불법

티베트불교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정리=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공·무아·연기 깨달아 완벽한 진리에 이르러야 하니 항상 불법과 스승 모시며 배움 게을리 하지 마세요”



올해로 한국 방문이 다섯 번째인 링 린포체가 23세 어엿한 청년이 돼 11월 24일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을 예방했다. 이 자리에서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은 “내년 9월 제주도로 달라이 라마를 초청하겠다”고 밝혔다.

제22대 링 린포체는

링 린포체는 승왕인 달라이 라마가 입적하면 누구에게도 환생하지 않겠다는 역할을 하는 고승이다. 현재의 달라이 라마를 점지했던 21대 링 린포체는 달라이 라마와 인도로 망명 후 1983년 입적했다. 현재의 링 린포체는 1985년 8월 인도 다람살라에서 태어났다. 당시 달라이 라마는 관(觀)을 통해 스승이 환생했음을 알고 조사단에게 링 린포체가 태어난 집과 그 주변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조사단은 1985년에 태어난 690명 어린이 중에 한 아이를 찾아냈는데, 이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조사단 중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다. 또한 전생에 링 린포체가 쓴 염주를 골라내는 등 100여 가지의 환생 확인과정을 거쳐 1987년 22대 링 린포체로 확정됐다.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이름	나이	신장	학력	직업	주소지
정영식	1964년생	170	고졸	공무원	서울	이규안	1970년생	165	대졸	건설사	광주시	정호승	1975년생	170	대졸	회사원	대전	원병대	1971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도
임용우	1966년생	174	고졸	자영업	충주	이광표	1968년생	168	고졸자	영업	서울	유준호	1971년생	176	대졸	회사원	서울	고병진	1975년생	163	대졸	회사원	서울
노해용	1972년생	173	고졸	C E O	대전	권순석	1978년생	171	대졸	건설사	경기도	박대현	1977년생	168	고졸	회사원	충주	김지경	1970년생	168	고졸	회사원	대전
이준우	1964년생	168	고졸	회사원	대전	박준규	1966년생	182	고졸자	영업	전주시	박법진	1975년생	182	고졸	공무원	경기도	김정준	1965년생	165	대졸	회사원	대전
김현태	1957년생	173	고졸	회사원	대구	문윤중	1970년생	163	고졸자	무업	광주시	민건홍	1973년생	170	전문대	건축설계	경기도	박경하	1952년생	177	대졸	무역	서울
조복재	1965년생	180	고졸	일반전문직	구미	김길성	1975년생	175	전문대	공무원	대전	한상규	1973년생	171	대학교	환경	충주	전준석	1957년생	167	고졸	회사원	안양
임태빈	1981년생	180	대졸	공무원	천안	민의식	1969년생	172	고졸자	회사원	부산	양명진	1955년생	170	고졸	회사원	경기도	오영일	1951년생	170	고졸	회사원	경기도
김기엽	1969년생	180	전문대졸	자영업	서울	최정우	1978년생	178	대졸	건설사	서울	이용철	1967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도	강태욱	1974년생	169	고졸	자영업	서울
홍봉표	1967년생	180	전문대졸	경기교양	경기고양	노금광	1972년생	162	고졸	출판	충남	고종욱	1970년생	167	대학교	회사원	서울	김용진	1968년생	160	대졸	자영업	인천
최명길	1974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시흥	정연중	1959년생	165	고졸	출판	경기시흥	안태영	1975년생	170	대학교	회사원	서울	이강술	1963년생	163	고졸	회사원	경기도
오상택	1965년생	165	고졸	회사원	경기부천	오세훈	1975년생	175	고졸	회사원	경기도	박진홍	1969년생	162	대학교	학원강사	경기도	심명길	1971년생	170	대졸	자영업	경기도
한용석	1975년생	167	고졸	회사원	부여	박찬득	1964년생	163	고졸	회사원	서울	배중우	1971년생	170	전문대	자영업	경기도	이연재	1974년생	169	대졸	자영업	서울
최경복	1971년생	174	고졸	회사원	전주	임상훈	1973년생	172	대졸	회사원	경기도	김상기	1975년생	170	고졸	회사원	경기도	배덕열	1976년생	168	대졸	회사원	경기도
이정배	1966년생	172	고졸	회사원	충북영동	연길호	1973년생	175	대학학	공무원	경기도	이중호	1976년생	163	고졸	회사원	경기도	배복열	1967년생	165	고졸	자영업	경기도
임형준	1973년생	176	전문대졸	회사원	대전	박성준	1965년생	169	고졸	건설사	대구시	오진철	1974년생	170	대졸	회사원	경기도	최병덕	1968년생	170	고졸	회사원	경기도
이영근	1976년생	165	대졸	회사원	대전	박준우	1971년생	170	대졸	건설사	제천시	이상강	1974년생	173	대학교	회사원	경기도	장보배	1973년생	176	고졸	자영업	아산시
김대중	1974년생	173	대졸	회사원	대전	최용우	1962년생	164	고졸	건설사업	홍성군	최영철	1966년생	160	전문대	회사원	경기도	유동식	1971년생	167	고졸	회사원	서울
정화섭	1960년생	175	대중퇴	공무원	경기이천	조현욱	1972년생	166	고졸	출판	경기도	최선모	1964년생	158	대학교	치과원장	경기도	유정환	1974년생	162	고졸	회사원	대전
이동희	1972년생	180	대졸	회사원	경북예천	김진록	1969년생	170	고졸	출판	충북	유창식	1974년생	165	대학교	약사	충북	김광범	1970년생	183	전문대	공무원	서울
강정복	1965년생	170	대졸	자영업	인천	김재원	1966년생	175	고졸	회사원	대구	전보우	1971년생	173	대학교	금융	충북	조경정	1945년생	171	대졸자	영업	경기도
정지영	1974년생	174	고졸	회사원	수원	서중은	1971년생	170	고졸	회사원	경기도	차준학	1972년생	171	대학교	금융	충북						
임인갑	1974년생	165	고졸	출판	대구	이건우	1971년생	173	대졸	자영업	경주시	이공희	1972년생	165	고졸	회사원	대전						
이현철	1972년생	175	방통대졸	금융직	서울	박천수	1975년생	160	전문대	발견공사	강원도	안민수	1974년생	175	대졸	회사원	대전						
김종희	1963년생	163	고졸	회사원	서울	모용우	1973년생	177	대학교	교육	경기도	고석범	1974년생	162	대졸	출판	충북						
이영일	1965년생	165	대졸	회사원	강원태백	박대식	1974년생	175	대학교	영업	충주	오귀석	1958년생	170	고졸	출판	충북						
박중구	1972년생	175	고졸	회사원	경기안양	최병익	1974년생	176	고졸	회사원	경기도	이진용	1955년생	175	고졸	출판	충북						
최용산	1970년생	170	방통대졸	공무원	서울	김진희	1964년생	160	고졸	회사원	경기도	안명규	1977년생	168	대졸	회사원	충북						
이동원	1970년생	172	대졸	출판	서울	정지현	1970년생	162	고졸	회사원	대전	여인석	1971년생	183	대졸	출판	충북						
남정대	1971년생	173	고졸	회사원	경북구미	정일호	1967년생	165	고졸	출판	대전	이재환	1973년생	176	대졸	출판	충북						
육근성	1970년생	185	전문대졸	회사원	충북옥천	박선준	1974년생	175	대학학	회사원	인천	박홍철	1974년생	170	고졸	회사원	충북						
박이수	1960년생	168	중졸	경기수원	진인덕	1965년생	157	대졸	회사원	충북	김재현	1970년생	173	고졸	출판	충북							
배영순	1956년생	150	대중퇴	자영업	경기화성	연태현	1973년생	182	고졸	회사원	대전	임재환	1970년생	167	고졸	출판	충북						
오성택	1970년생	165	고졸	사업예정	경기부천	전홍배	1979년생	170	대졸	자영업	대전	최우준	1971년생	167	고졸	출판	충북						
변희섭	1965년생	174	고졸	회사원	경북구미	박정은	1972년생	168	대졸	출판	충북	김정태	1957년생	162	대졸	출판	충북						
김대환	1973년생	172	대졸	출판	광주광역시	강중남	1973년생	160	고졸	회사원	전북	성민수	1970년생	168	대졸	출판	충북						
김창영	1970년생	163	대졸	출판	충주시	송중현	1971년생	172	고졸	회사원	경기도	곽태성	1958년생	172	대중퇴	공무원	충북						
박영학	1967년생	170	고졸	회사원	고양시	김대석	1973년생	170	대졸	출판	서울	정현제	1965년생	174	대졸	제과점	충북						
홍진석	1968년생	167	대졸	시설관리	부천시	장정석	1967년생	175	고졸	회사원	서울	김호중	1970년생	166	고졸	회사원	충북						
조성현	1969년생	170	전문대	회사원	부산	안상기	1966년생	185	고졸	공무원	충북	이기중	1971년생	175	대학교	회사원	충북						
배병진	1967년생	169	대졸	회사원	부산	정우철	1974년생	175	대졸	회사원	충북	최성욱	1973년생	190	대졸	도매	경기도						
전남진	1972년생	172	전문대	치기공사	서울	김윤구	1979년생	170	대졸	회사원	경기	조성준	1975년생	170	전문대	회사원	서울						

현대불교신문 독자 여러분을 위한 인연 찾기 캠페인입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서로 아끼고, 함께 닦아 갈 인연을 찾습니다. 오랜 인연의 기다림으로 여성 불자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대성사 주지 혜철

주관 현대불교신문 충청지사 지사장 혜철스님

전화 | 043)732-5560, 010-9422-8453
팩스 | 043)732-5520
홈페이지 | www.dss.or.kr
다음카페 | cafe.daum.net/dasungsa